



우아한 곡선미와 단순미 국제갤러리 장 로이에 전시

20세기 독창적인 실내건축 대가 장 로이에(1902~1981·프랑스) 디자인 전시가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 서 열린다. 장 로이에 작품이 국내에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우아한 곡선미와 단순미를 강조한 명쾌한 색상 의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국제갤러리는 2005년과 2006년 장푸르베와 조지 나카시마 전시를 잇따라 소개하면서 디자인 전시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2년 전에는 네덜란드 신에 요리스 라만 전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그의 작품 소재는 화려하고 다양한 직물과 패턴에서 원목과 금속까지 다양하다. 서로 다른 재료들이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경쾌하고 화려한 색감이 도드라지는데, 그는 단순하지만 명시성을 강조해 밝고 유쾌한 실내 건축 이미지를 연출했다.

전시장에 나온 작품들은 195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 웅장하고 고전적인 유럽 양식을 깬 것으로 평가된다. 관람객들은 만질 수 없고 눈으로만 봐야 한다. 전시는 본관에서 31일까지. (02)3210-9885

이향휘 기자